
2022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KSS해운

“친환경과 고객가치 실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국내 선사 최초로 친환경 연료(LPG·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배경)

KSS해운은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EO Message를 통해 'ESG 내재화', '해륙상 통합 리스크 관리', '외부환경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경영전략수립, 각종 리스크 관리, ESG 경영시스템 정착 및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선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경영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미래성장전략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전략 수립과 관련 투자 집행 등의 사안을 직접 관리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규제와도 부합된 CO2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탄소중립(Net-Zero)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할 계획이다.

Activities

1) 이익공유제: 성과급과 달리 이익 배당급의 산출방법이 사내 규정에 명문화되어 전임직원에 공개되고 전임직원에 동일 비율로 균등하게 지급된다. 임직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일하고 각종 회계 부정 또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감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임직원 만족도는 증가하고 사고 손해율은 줄어드는 선순환 경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 사업 연계-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한 친환경 연료(LPG·메탄올) 추진 선박도입과 동시에 탈황장치(Scrubber)설치,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등을 통해 세계적 탄소중립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은 기존 선박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0%, 온실가스 배출을 25% 줄일 수 있다.

3) 네트워크 조성: 전라남도 목포시, 26개 조선·기자재·해운기업 5개 공공·연구기관·목포대·목포해양대와 함께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하여 환경 규제 대응이 가능한 친환경 대체 연료 기술의 보급 확산과 정부의 친환경 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4) 선박 안전관리: 가스 및 기초 케미칼,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연성/폭발성/독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로 '안전운항'을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무사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종 내부 안전 관리 지표들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시안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 위험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캠페인, 안전의식 평가를 시행하며 해륙상 순환근무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선박)과 지원부서(육상)간 유기적 선박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익공유제에 따른 임직원 만족도 증가와 안정적인 지배구조



Performance(성과)

친환경 선용품 사용,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이중연료 추진선 발주를 통해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으며 대형 선대 전체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설치를 조기 완료했다. 또한 이익공유제를 통해 상여금 1,146% 증가 성과를 가져왔으며 매출대비 접대비 예산 37% 감소, 부패 관련 사고율 0%를 기록했다. 19년 77.34%인 임직원 만족도는 21년 91.91%로 상승했다. 선박 안전에 대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륙상 순환근무 제도 등을 통해 21년 산재보험 사고 손해를 4%를 기록했다(업계평균 32%). KSS해운은 최대주주(창업주)가 20%에 가까운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고 우리사주 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20%에 가까운 비율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5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 오고 있다.

Process

ESG 경영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 내 전담 부서인 'ESG 경영팀'을 신설하고 회사의 ESG정책과 방향을 경영진과 논의하고 있다. 각 실무 부서에 회사의 방향성과 시행방안을 안내하여 전 임직원이 올바른 ESG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SG경영팀 외에 각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TF팀'을 통해서도 향후 다가올 각종

환경 관련 규제, 탄소중립(Net-Zero)목표 설정, 사회적 임경영 강화, 기업지배구조 확립 등 여러 ESG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진기업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DPA(안전관리책임자)와 더불어 주요 분야별 책임자들과 안전보건 환경품질 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개최하는 경영검토실적회의에서 그 이행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IR자료 발간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uture(전망)

싱가포르 소재 마리나 체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사업 MOU를 체결하여, 운항정보를 전송 받아 해당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여 운항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탄소배출 저감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양계 고교, 대학 및 조선소 근무자 마스크 지급, 재난 복구 피해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해양고교 및 대학 장학금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CO2 감축 로드맵 및 IMO 온실가스 규제 타임라인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다가갈 것이다. ESG와 연계한 Shipping KPI(선박운명을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그와 관련된 조직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과 사회적 가치 확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